

연예뉴스 HOT 5

그룹 엑소 디오, 7월1일 입대



디오

그룹 엑소의 디오(도경수·27)가 7월1일 자원 입대한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30일 “디오가 7일 시우민의 입대 이후 국방의 의무를 이룬 시일 안에 이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입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용히 입대하기를 위해 입대 장소와 시간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디오는 드라마 ‘백일의 낭군님’, 영화 ‘스윙키즈’ 등에 출연해왔다.

김진경·래퍼 크루셜스타 열애



김진경

크루셜스타

모델 겸 연기자 김진경(22)과 래퍼 크루셜스타(박세윤·30)가 열애 중이다. 김진경의 소속사 에스탐엔터테인먼트는 30일 “두 사람이 만난 지 1년 쯤 됐다”며 교제를 인정했다. 크루셜스타는 이날 SNS를 통해 “김진경은 세계 큰 영감을 주고 안식처가 되어준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크루셜스타는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4’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부천국제영화제 주제는 ‘SF’

제23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의 주제가 SF로 정해졌다. 6월27일부터 7월7일까지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49개국 288편을 상영한다. 개막작은 “기름도둑”, 폐막작은 “남산 시인 살인사건”이다. 코리안 판타스틱 경쟁부문에서는 8편, 판타스틱 단편 걸작전에는 35편이 선보인다. 올해 데뷔 33주년을 맞는 배우 김혜수도 특별전을 연다.

세븐틴 ‘해피엔딩’ 日 실시간 차트 1위



세븐틴

그룹 세븐틴의 일본 첫 싱글 ‘해피엔딩’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30일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세븐틴의 ‘해피엔딩’은 29일 공개되자마자 현지 음원사이트인 라인뮤직에서 톱 100 실시간 차트 1위에 올랐다. 또 11만 장의 판매량으로 오리콘 데일리 싱글 차트 2위를 차지했다. 일본을 비롯해 스페인, 네덜란드 등 아이튠즈 차트 1위를 기록했다.

‘불후의 명곡’ 7월부터 전국투어

KBS 2TV ‘불후의 명곡’이 7월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투어 콘서트를 연다. 주최 측인 KBS미디어는 “7월13일 대구에서 시작해 부산, 창원, 서울, 광주 등에서 공연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대구 공연에는 김태우, 알리, 손승연, 몽니, 김용진 등이 무대에 올라 인기곡들을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선보인다”고 밝혔다.

주말기획 | 요즘 뜨는 ‘예능콤비’들 유형별 매력 대분석

‘툼과 제리형’ 강호동·이수근 웃음궁합 최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 눈빛만 봐도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할지 단번에 알아차린다. 세대를 초월한 김수미·장동민부터 ‘여여케미’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김숙·박나래까지 뛰어난 호흡으로 각 방송사를 휩쓸고 있는 ‘예능콤비’들이다. 이들은 서로 주머니 받거나 끌어주고 밀어주며 물 흐르듯 매끄러운 진행 실력을 보여준다. 활약은 시청자는 물론 제작진에게도 신뢰감을 안겨 ‘캐스팅 1순위’로 이어진다. 취미나 공통 관심사 등으로 똘치듯 특정한 연예계 ‘인(人)라인’ 도시선을 모은다.



매사 티격태격하며 찰떡호흡 12년째 채널A ‘굿피플’ 공동진행 인기몰이

강호동

이수근

●‘툼과 제리’ 강호동·이수근

채널A ‘굿피플’의 공동 진행자인 방송인 강호동과 이수근은 12년이란 긴 ‘역사’를 가졌다. 2007년 KBS 2TV ‘1박 2일’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tvN ‘수상한 가수’, 올림프 ‘섬총사’ 시리즈, ‘토크몬’ 등 무려 16편의 프로그램을 함께 했다. 특히 tvN ‘신서유기’와 ‘강식당’ 시리즈에서 ‘툼과 제리’ 뺑치는 호흡

을 드러내고 있다.

강호동은 사소한 일에도 특하면 “수근아”를 외친다. 이수근은 그런 강호동의 ‘손발’이 되어주면서도 특유의 ‘간죽 매력’을 잃지 않는다. 비록 매사 티격태격하지만 이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신뢰가 없다면 절대 불가능할 ‘케미스트리’다. 강호동의 리더십과 이수근의 순발력이 만나 내뿜는 시너지도 시청자를 사로잡는다.



장동민

김수미

김수미·장동민, 30년 세월 뛰어넘은 ‘작공남매’

●‘밥 잘해주는 누나’ 김수미·장동민

연기자 김수미(70)와 방송인 장동민(40)은 30세 나이 차를 가뿐히 넘어선 작공이다. 이들은 2015년 파일럿 프로그램 KBS 2TV ‘나를 돌아봐’에서 연예인과 일일 매니저로 처음 만났다. 호통 개그로 이름을 날린 장동민이 김수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림은 신선함 그 자체였다.

이들의 인연은 작년 tvN ‘수미네 반

찬’으로 이어졌다. 특히 눈대중으로 조미료를 톡톡 털어 넣으며 “요란치”라고 말하는 김수미를 보고, “작은 한 스푼”으로 ‘해석’하는 장동민의 센스가 돋보였다. 김수미는 장동민의 지원자격으로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이 기반이 되는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시즌2에까지 진출했다. 상부상조의 표본이 되는 이들의 조합은 그야말로 ‘운명’이라 할 만하다.



“자기야” 오늘 브라더스의 무한도전 ‘유클즈...’에선 맨 인 블랙형 콤비

유재석

조세호

●‘맨 인 블랙’ 유재석·조세호

방송인 유재석과 조세호는 작년 MBC ‘무한도전’에서 본격적으로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다. 조세호가 무심코 던진 “자기야”란 호칭을 ‘대선배’ 유재석이 흔쾌히 “왜 불러? 자기야”라고 받아치면서 콤비는 시작됐다. 잔뜩 기합 든 ‘무도’ 막내 조세호를 다독거린 사람도 리더 유재석이었다.

두 사람은 마치 영화 ‘맨 인 블랙’ 속

베테랑 K요원과 패기 넘치는 신입 J요원을 연상케 한다. 이들의 만남은 KBS 2TV ‘해피투게더4’에서도 이어졌다. 마침내 작년 8월 시작한 tvN ‘유클즈 온더 블랙’ 공동 진행을 맡으면서 비로소 본격적인 콤비가 됐다. 프로그램에서 유재석은 “큰 자기”, 조세호는 “아기자기”로 불린다. 이 호칭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한 마디로 정리해준다.



박나래

김숙

김숙·박나래, 거침없는 입담...“너는 나의 운명”

●‘델마와 루이스’ 김숙·박나래

그야말로 영화 ‘델마와 루이스’ 속 캐릭터처럼 야생마 같은 매력이 인상적인 콤비다. 방송인 김숙과 박나래는 예능 세계에서 ‘거침없는 입담’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 김숙은 “어디 남자가 조신하지 못 하게”라며 호통을 치고, 박나래는 ‘농염한 표정으로’ “나래바(bar)에 꼭 초대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는다. 여러 모로 남성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걸크러시’ 2인조다.

그런 두 사람은 2016년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를 진행하며 절친한 선후배가 됐다. 이어 3월 MBC ‘구해줘 홀즈’에서는 복팀과 덕팀의 팀장으로서 대결 구도를 이뤘다. 경쟁은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연말 시상식에서 강력한 수상 후보로 맞붙으면서 ‘여성 예능인의 자존심’으로 올라섰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여행’으로 똘치 김신영·설현·지민

취미·관심사로 똘치 연예계 사람인

카메라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스타들의 찰떡궁합 호흡은 빛을 발한다. 취미나 공통 관심사 등을 매개로 교류하며 정겨운 풍경을 만들고 있다.

가장 이색적인 조합은 개그우먼 김신영과 걸그룹 AOA의 설현·지민이다. ‘셋이서 영원히 하나’라는 의미로 모임 이름을 ‘301’로 지은 이들은 한 음악프로그램의 진행자와 출연자로 처음 만나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세 사람은 주로 여행을 통해 우정을 돈독히 한다. 경기도 가평 등 국내는 물론 터키, 베트남 등 장소 불문이다. 때론 속 깊은 대화도 나누며 서로 인생 상담사가 되어주기도 한다. 함께 있을 때에는 휴대전화를 멀리하는 규칙을 만들어 서로에게 더욱 집중한다. 김신영은 “동생들이 그 나이에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언니의 마음이다”고 말한다.

취미로 똘치 이들도 있다. 축구를 좋아하는 스타들이 모여 2011년 F맨을 만들어 활동 중이다. 초대 단장 김준수를 필두



김신영·지민·설현(왼쪽부터)

로 그룹 하이라이트의 윤두준과 이기광, 인피니트 남우현 등이 핵심 멤버다. 단순히 친목 다지기나 취미 즐기기에 그치지 않고 자선경기도 개최하고 있다.

연기자 김수현과 그룹 FT아일랜드의 이홍기, 가수 채연은 불링으로 ‘하나’가 됐다. 프로 선수 테스트에 참가할 만큼 실력이 뛰어난 이들은 불링장을 오가며 교류하고 있다.

유기견 봉사단체인 ‘동물친구개방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스타들이 온정을 베풀고 있다. 기상캐스터 출신 안혜경을 포함해 연기자 이다해, 한보름, 성훈 등과 개그우먼 김영희 등이 한 달에 두 번 씩 정기적으로 현장을 찾아 유기견을 돌보는 데 힘을 보탠다.

1995년생 아이돌 스타들로 구성된 ‘구오즈’(95’s)는 화려한 ‘멤버’로 눈길을 붙잡는다. 방탄소년단의 뷔와 지민, 비투비 육성재, 보이프렌드 출신 영민과 광민 등이 땀과 눈물로 엮인 끈끈한 관계이다. 무대 밖에서만큼은 라이벌이 아닌 치열한 아이돌 세계를 함께 헤쳐 나가는 동지이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